

韓·蘇 문화교류의 길을 열었다

제7회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 參加記

李斗暎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7회 국제도서박람회에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 우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비록 모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2세, 3세 교포들이지만 멀리 알마타, 타슈켄트, 사할린 등지에서 일부러 찾아와 할아버지의 나라, 혹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온 책들을 끌어안고 감격해 하던 교민들의 모습, 고도로 발달된 우리의 출판수준에 찬탄과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보다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열망하던 소련 출판인들, 우리 책에 매료되어 전시장을 떠날 줄 모르던 소련 시민들, 유창한 서울말(그들은 엄격할 정도로 조선어와 한국어를 구분짓고 있었다)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어 우리를 놀라게 하던 소련 지식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굳게 닫혔던 단절의 벽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에 참가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몇번씩이나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진작부터 참가해온 다른 어느 국제도서박람회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열광적인 반응과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성취한 학술·문화·예술의 결정체인 책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도서박람회는 현재 전세계 약 40여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러한 국제도서박람회는 우수도서의 대중적인 확산을 꾀하고 출판정보 및 기술의 교환, 출판인 상호간의 유대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국제도서박람회가 로마문자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책의 향연이요, 출판문화의 건본시장 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모스크바도서박람회 참가는 우리도 국제무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64개국 2천여 출판사 참가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제7회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는 지난 9월12일부터 18일까지 '책은 평화와 진보에 봉사한다'는 주제로 모스크바市에 소재한 국민경제달성전람관에서 개최되었다.

모두 64개국에서 2,000여 출판사가 10만종이 넘는 신간들을 출품했다는 주최측의 발표가 아니라도, 모두 5개의 대형전시관으로 나누

어 펼쳐진 책의 잔치 그 자체가 이번 전시회 규모를 그대로 웅변해주고 있다.

제1관부터 제3관까지는 소련과 외국 출판사들의 전시장이었고, 제4전시장은 '도서와 세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란 주제와 '88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발행된 과학·기술 잡지 전시 등 두가지 특별전시장으로 배치하였다. 이 두 특별전시회는 출품료를 따로 받지 않지만 출품도서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두가지 문제에 관련이 깊은 해외 최신정보자료를 손쉽게, 그리고 값싸게 얻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제5전시관에 마련된 소련방 내에서 다국어로 출판된 문학 및 예술 분야의 우수도서 전시회와 소련의 출판물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크니가'가 한 전시장 2층을 모두 차지하고 자국 도서를 집중전시하면서 상담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이채로웠다.

지난번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중주국이던 주최국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공산권 국가들이 중심이 된 책의 행사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제6회 때의 참가국 수는 104개국이었다고 하지만, 전시관 수도 3개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자유진영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이 주효해서 서방세계 출판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실질적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도서전본시장이자 전시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은 대신 외교관계가 없는 우리가 참가한 것도 이번 박람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꼽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참가는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박람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미트로프니가 "최근 국제무대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가장 발전하고 있는 나라의 하나인 한국이 참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밝힐 정도로 개막 전부터 관심의 표적이 되었다.

우리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련언론에서도 처음 참가한 우리에게 큰 관심을 표명, 모스크바방송·중앙TV·타스통신 등이 다투어 한국관을 소개하거나 權炳奎 회장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대표단의 활동상황과 한국출판계 현황을 소개해 주었다. 또, 월간 「소년문화」에서는 한국 출판문화 현황을 소개하기로 약속했다. '베네타'라고 불리는 국민경제달성전람관은

우리로서는 처음 참가한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에서

우리는 다른 어느 국제 도서전에서도

경험치 못했던 열광적 반응과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반관람객은 물론이고

하루 150명꼴에 이르는 소련의

출판인이나 저자들이 줄을 이어

한국관을 방문, 상담을 벌이느라

대표단은 점심을 거르기 일쑤였다.

도서전시장으로서의 입지조건이 그리 좋은 편은 못 되었다. 모스크바 시내 북쪽 외곽에 위치한 데다 12.65km나 되는 광대한 부지에 농경관, 경공업관, 전기관, 의학관, 생물학관, 우주관, 원자력관 등 81동의 상설전시장과 300여개의 부속시설 등 항구적인 박람회 시설을 갖춘 곳으로 30코페이카(우리 돈으로 3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그 넓은 전람회장 한가운데 위치한 도서 박람회장에 이르려면 정문에서 20분 이상 걸어야 들어가야 한다. 다행히 시민을 위한 공원구실도 겸할 수 있도록 잘 조성된 때문인지, 소련사람들의 도서잔치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전시장에 이르는 넓다란 길은 사람들의 물결로 뒤덮일 정도였다.

1973년에 UCC에 가입한 소련이 해외진출을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각국과의 출판협력 등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에 쏟고 있는 열의와 기대는 개회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니콜라이 에피모프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그들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메시지를 비롯해서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의 축사를 통해 이 행사가 범세계적인 규모의 국제행사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였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책은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믿을직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발전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민족이나 국가를 가깝게 접근시켜주는 도구가 되어왔음"을 전제하고 "정신적

풍요와 지적 향상에 기여하는 책의 항구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책의 문화와 관련된 인사-저자·출판인·인쇄인·서적상들의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번 도서박람회가 국제교류에 큰 기여를 하고, 정신적 풍요를 제고시키고 진리·공정성·평화와 진보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도서박람회를 주최한 조직위원회는 정부, 출판단체 및 소련 창작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소련 출판·인쇄산업을 관장하는 최고 행정기구인 국가출판위원회에 소속된 상설기구이다.

우리 출판수준에 소련인들 감탄

한국관을 5개의 전시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제1관으로 배정받아 60㎡의 전시대에 우리의 출판수준을 과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간도서 571종 1,800권을 분야별로 출품했다. 이제까지 참가한 국제도서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전시관 입구에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전통과 발전하는 나라의 이미지를 아울러 부각시킬 수 있는 사진과 포스터 등으로 장식해서 장식면에서도 한결 돋보였다.

관람객들의 한국책에 대한 관심은 꼭 다양한 편이었다. 가장 관심을 끈 분야는 아동도서, 태권도, 요리, 꽃꽂이, 자수, 전통예절이나 풍속, 사진류 등이었지만 의외로 과학·기술도서를 찾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다른 전시회와 다른 점이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보고 반기는 그들을 통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종교의 자유가 다소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기도 했다. 꽃꽂이나 자수책을 펴두고 3~4시간 동안 열심히 복사하는 소련여성들에게 책을 팔 수 없었던 것은 지금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도난당한 것도 적지 않았다.

소련 출판인이나 저자들도 하루 150여명꼴로 한국관을 방문, 한국과 번역출판에서부터 합작출판, 인쇄용역, 파지 재생공장의 합작투자 및 기술이양 요청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상담이 줄을 이어 대표단들은 점심을 거를 정도였다.

많은 출판사들이 한국과의 출판협력을 원하고, 저자들과서 적극적으로 한국어번역권의 출판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소련의 전반적인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의 면면들.



소련인 관람객들로 붐비는 韓國館. 그들은 한국의 출판수준을 부러워했다.

출판수준이 우리에게 뒤지는 데다 자체부족 현상이 극심한 경제적 여건 탓만은 아닌 듯 싶었다.

한편, 북한이 참가를 신청했다가 돌연 취소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소련에서는 우리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인 주최측에 대한 항의표시와, 또 하나는 우리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인 열세를 드러내보이지 않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한·소간 출판교류覽書 교환

장기적인 교류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판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실태 등 출판시스템과 저작권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서 '한국의 날' 행사 및 주요인사와의 면담 등 우리 나름의 계획을 추진시켜 나갔

다. 소련 국가출판위원회 슬라스테넨코 부위원장과는 한·소 출판교류 추진의 기본방향에 관해, 저작권 교류의 일차적인 대상분야에서부터 다음 도서박람회 참가계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저작권관리기구인 와프(VAAP)와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했다.

인쇄소와 출판사, 그리고 서적상으로 구성된 국제공체론 인터프린터출판사그룹과는 출판교류에 관한 합의각서를 정식으로 교환했다. 도서박람회 전무이사겸 국가출판위원회 국제교류분과 자문역을 맡고 있는 소콜로프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양국간의 합의서는, 우리 협회와 국제공체론이 양국 출판교류의 당사자임을 상호 인정하고 번역·복제, 출판물의 상호교환

전시, 합작투자, 공동출판과 출판인의 교류 등에 긴밀히 협조기로 함으로써 국교수립 이전에도 다각적인 교류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양측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2~3명의 한국 대표단을 5일간 모스크바에 파견하는 문제가 지 거론하였다.

뜨거운 한국연구열

코스모스호텔에서 9월16일 '한국의 날' 행사로 우리가 마련한 '한·소 한국학 및 출판협력에 관한 세미나'와 이에 연이은 리셉션은 在蘇 한국학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소련의 한국에 대한 관심의 흐름의 변화를 확인하고, 바야흐로 긍정적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되고 있는 소련에서의 한국학 연구를 자극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던 모임이었다.

우리 대표단으로부터 한국의 출판계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는 후 연사로 초빙된 모스크바 대학 교수이며 소련에서 가장 권위있는 한국사학자 박미하일 교수를 비롯한 소련학자들은 발표를 통해 한국학연구가 언어학·경제학·문학 등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한국학 연구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반해 우리 대표들은 한국사의 서술방향, 남북한 자료의 활용실태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왕성한 학문적 탐구욕을 충족시켜줄 자료의 결핍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들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간절히 요청해왔다.

한국에 관한 도서의 빈핍은 비단 개인 연구자들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었다. 3,000만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레닌국립도서관에도 북한에서 나온 「김일성 선집」 정도가 있을 뿐 한국 책은 한권도 없다고 한다. 15명의 조선연구가 중 7명이 한국문제전문가인 소련과학원 동방학연구소나 조선어과가 있는 모스크바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최근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 부쩍 고조되고 있는 한국어 학습열이나, 우리의 풍습·전통문화·역사 등에 관한 교과서나 사전도 전무한 상태이다.

그래서 출판도서는 책의 내용에 따라 레닌국립도서관, 모스크바대학 한국어과, 소련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외국문학도서관 등 네 곳으로 나누어 기증했다.

이번 도서박람회에 소련에서는 중앙의 53개 출판사와, 15개 공화국으로부터의 135개 출판사 등 모두 188개 출판사가 참가했다.

국가출판위원회의 출판계획에 따라 출판종수와 발행량이 결정되는 때문인지 출판량은 분야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들은 당국의 판단에 따라 계획된 양만큼 출판된 뒤에는 아무리 인기있는 것이라도 대부분 절판돼버리기 때문에 일반 생활필수품과 마찬가지로 구입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2층을 합쳐 약500평 가량 되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서점 '모스크바 책의 집'도 고서까지 취급하고 있었지만, 진열된 책들은 그리 많지 못했다.

우리의 자동차도서관과 같은 모양의 이동서점 앞에서 책을 사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은 도서박람회장 안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으나, 상설서점은 모스크바에서도 레닌그라드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도서박람회장을 찾은 한 독자는 전시된 책들을 어느 서점에서든지 손쉽게 살 수 있다는 설명에 부러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교류 전담기구 설치 필요

제7회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앞으로 한·소간 출판교류는 우리의 북방정책과 소련의 개방정책이 맞물려 활발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그들의 경제사정이나 제도상 우리책을 대량 구입해 간다거나 번역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러나 현지에서 우리책의 전시회를 개최한다거나 한국학연구기관, 단체 및 교민들을 위한 도서기증과 같은 사업은 소련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나 올바른 한국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교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키워주고 소련내에 한국도서 판매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합작투자 내지 인사교류 등 효율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관련畫報 24-25면에>